東亞日報

新聞定價 壹個月 壹圓 ... 廣告料 ... [illegible]

發行所 京城府花洞一三八番地 株式會社 東亞日報社 編輯兼發行人 印刷人 [illegible]

# 秋夕

## 名節을復興하라

一

『秋夕이지마는 쓸쓸하다!』 이것은 非常한 슬픈말이다 秋夕은 豐盛々々해야할 名節이다 五穀은 豐登하엿고 바람은 맑고 달은 밝다 오려송편과 해ㅅ쌀밥에 배를 불리고 며츨동안 돌아볼새 업던 先祖의 墳墓를 돌아보는것이 얼마나 질겁기도하고 아름답기도한 情이랴 秋夕은 豐盛々々해야할 明節이다

二

그런데 엇지하야 이 豐盛々々해야할 秋夕이 이러케도 쓸쓸한가 秋夕뿐아니오 모든 民衆의名節이 다 쓸쓸하게되고말앗다 二十年來로 漸々 衰頹하는 名節이 인제 와서는 거의 形骸만 남고말앗다 새옷닙고 머리빗고 질겁게 뛰어다니는 아이들조차 漸々 업서지고 니르바 名節氣分이라는것은 아조업서지고말앗다 이것이 무슨까닭인가 人民의 貧窮하여진까닭이오 唯物的으로된外까닭이오 여러가지 打擊으로 元氣가 沮喪한까닭이다 그中에도 가장 우리가 注意할것은 名節의 衰頹와 民衆의 元氣의 沮喪과의 關係다 사람이란 젊을사록 名節氣分이 만코 老衰할사록 名節氣分이 줄어지는것이다 一家族으로 보더라도 衰弱과 疾苦가업고 子孫이 昌盛하는집일사록 名節氣分이 橫溢하는것이니 名節에 쓸々한 家族은 衰殘하는 家族의 標徵이다 우리는 一年내ㅣ 人生을 享樂하거니와 特히 四季中의 조흔 時節을 擇하야 한바탕씩 모든 貧生活의 勞苦와 憂慮와 모든슬픔을잇고 隣里와 親戚이 他我와 利害의念을 바리고 和樂團의 昔日을 回想하는것이다 이것은 勞苦와 憂慮에 對하야서는 心身의 조흔休養이오 貧生活의 利害와 他我의 乖離에 對하야서는 精神의 洗滌이오 齋戒다 眞正으로 조흔 名節은 우리의게 慰安과 向上과 休養을 주는것이다 外國에는 一年幾次의 큰名節이 잇서서 그날은 진실로 男女老幼가 미친드시 질겁게 논다 朝鮮과가치 名節업는 나라는 업다

三

로만 롤란氏는 歐羅巴人民에도 조흔 名節이 不足함을 恨嘆하야 一年幾次 祝日만 時期를 擇하야 國家的으로 조흔 名節을 더 創定하기를 主張하엿다 그의 主張하는 名節에는 두가지 要件이 잇다 첫재는 人類의 恩人될만한이의 날을定하야 그날에는 그 恩人의 精神과 事業을 追慕할것이오 둘재에는 그날에 一村이나 一洞이 한곳에 會集하야 團體的으로 音樂함으로 社會的精神을 鼓吹하자함이다 이것은 非常히 卓越한 意見이어니와 그러케 立法的으로 할수는업는일일것이다 그러나 그精神에는 絕對로 同感하지아니할수업는일이다 假令 四月八日은大聖釋迦의 誕日 十二月二十五日은 大聖耶蘇의 誕日 이모양으로 孔子의 誕日 檀君의 誕日 偉大한 科學者 思想家 社會改革家 藝術家等 人類의 恩人의 날을 定하는것은 極히 조흔일일것이오 또 그날을 主張과가치 로만 롤란氏의 一村과 一洞이 團體的으로 享樂하면 더욱理想的일것이다

四

그러나 在來의 名節에도 各々 意義가 잇는것이다 설名節은 一年의 始로 新元氣를 發하야 人生의 新事業을 經營하기를 서로 祝福하는날이니 이날에는 서로 訪問하고 서로 祝福함으로 人類愛의 精神을 發揮하는날이오 大보름은 新年初次의 滿月이라 處女總角들과 農夫들의 明節이오 五月端午는 日字의 奇異함으로 거의全世界에 共通한것이니 萬物이 伸暢하는 夏의 名節이오 生命力의 名節이라 朝鮮에서 그날에는 男子들의 씨름과 女子들의 그네는 生命力의 伸暢에 장合當한일이오 또七月白踵은 一年도 임의半을過하고 農役도거의畢하엿스며 孟蘭盆이라하야 先祖의 靈과모든無主孤魂의濟度를비는날이며 八月秋夕은五穀이農登하고 百果가다 늬어天下의 大喜悅이 이에서 더할것이업는날이다 淸風明月下에 新酒에醉하고 新餅에 飽하는것이 엇더케나 큰 樂이랴 더구나 農業國인 朝鮮에는 意義가 깁흔날이다

五

沮喪한 民氣를 興奮하고 衰殘한 우리의 生活을 歡樂케하기爲하야 衰殘하엿던 名節을 復興하고 새로운 民衆的名節을 創定하는것이 決코 無用의 일은아닐것이다 이 일을 奬勵하기爲하야 學校에서도 一日의 休暇를주고 그날에 靑年會又는 團體에서도 조흔 名節노리를 考案하는것도 조흔것이다 엇지하든지 조흔 名節을 만히 가지는 백성되고 십다

## 小作人과商工業勞働者地位와境遇如何 (五)

鮮于全

...小作人은 一居奴隷的境遇에 處하엿다하며 此点으로觀하야 今日의 小作人과 商工業勞働者의 經濟的地位를 相比하면 小作人이 一層低劣하고 不安한 境遇에 處하엿다 하겟도다 第四로는 小作人의 勞働自由가 如何하냐하면 小作人은 地主로부터 土地를 一定한 期間 一定한 小作料를 支拂할 條件으로 借用하야 其耕作權을 自意로 行使하야 小作營業을 行함으로 小作權이 確認되는 限에서는 小作勞働은 充分保障되리라 하며 可하다 此에 對하여서도 반드시 其眞相을 明白히 觀察하면 此로써 小作人의 幸福으로 推想키 難하다는것은 小作人이 有한 바 如上의 勞働保障이라는것은 其實 勞働의自由를意味하는保障이되지못하고 엇더한意味로 觀察하면 勞働의 束縛이라 하여야 可하다 土地에 對한 小作權의 獲得이 勞働의 保障이 될가 勞働의 束縛이 될가는 小作人의 勞働狀態와 心理와에 依하야 判斷할바이다 即 小作人이 有利한 狀態에 在하야 小作權을 獲得하엿다 하면 그것이야말로 勞働의 保障이 되야 小作人의 幸福을 翼키 能하나 此의 反對로 他의 勞働條件보다도 不利한 狀態에 在하야 小作權을 所有하엿다 하면 그는 土地에 束縛되고 不自由의 勞働이라 此를 小作人의 利益이라 稱키 難하다 今日 小作人의 狀態를 觀할진대 多數 小作人의 收入及勞働條件은 前述한바와 如히 賃銀勞働條件에 比하야 優하다하느니보다 도로혀 劣하다할지니 此가 事實일진대 現時의 小作人이 小作權을 有한 反面에는 그의 生存이 土地勞働에 拘束되여 所謂勞働의 保障이라는 것은 도리혀 不自由의 勞働이 된다하여야 可하고 그勞働의 保障이 小作人이야말로 奴隷的 階級의 小作이라 하여야 可하겟다 또 他一面으로 觀察하면 小作人은 自己의 小作勞働을 過히 渴望하기 때문에 自己勞働의 自由를 一層束縛하는 듯하다 即 小作權獲得競爭에 入하야 互相牽制함으로 此의 結果에는 地主의 權威만 增長되야 小作勞働者의 不利가 一層增大되며 地主가 如何한 權威를 揮한다 할지라도 勞働移轉에 自由를 못하야 自利를 損하면서 悲慘한 生活을 忍耐하게된다 此境遇에 小作人의 免키 不能한 不利益은 單히 地主의 獨占的 利益을 多케하는 以外 進하야 强者的 權威와 支配力을 增케하는것 그것이니 此事情裏面에서 生하는 小作人生活 悲慘한 事實은 枚擧키 不能한 數에 出現하는지라 다시 說할 必要가 無하거니와 何如間 小作人勞働의 勞働的 束縛은 小作人으로하야금 容易히 土地에서 解放키 不能하게 하야 如何한 小作報酬가 苛한 境遇에도 如何히 生活難이 窮迫한 境遇에도 悲慘을 忍하면서 小作勞働에 從事치 아니치못하는 運命을 自持케되앗나니 此에 至하야서는 勞働의 自由를 得하며 잇는 賃銀勞働者 便이 自由를 得하며 잇느니만치 幸福스러운 地位와 利益스러운 境遇에 處하엿다 할 것이 可하며 實로 彼의 賃銀勞働者는 多少의 勞働的 不安이 伴從한다 할지라도 高率의 勞銀을 取하야 勞働選擇에 自由로운 便宜를 有한것은 彼의 幸福이라 하겟도다 小作人이 自有上述한 바와 如히 勞働의 自由를 하며 잇는 所謂勞働保障은 決코 幸福스러운 勞働保障이 아니고 寧로 不幸한 束縛임으로 現在의 小作人은 此不幸과 束縛에서 自己를 解放하려 하며 自由地로 移轉하려는 傾向이 有하다 觀하라 近來 現著한 農村人口의 都市集中이라는 現象은 決코 一部 農民의 虛榮的 都會熱의 發現이 아니고 實로 下級農民이 되는 小作人이 衷心으로 勞働의 自由를 欲求하는 結果의 出現 即換言하면 不利한 農業勞働으로부터 有利한 商工業勞働에, 低率인 農村賃銀으로부터 高率인 都會賃銀에 趨하려하는 小作人의 自然的 要求의 出現을 見케되엿도다 都會에 集中하는 農民을 指하야 虛榮兒라 嘲하며 趨炎附熱의 徒라 罵치 말라 下級農民으로하여금 都會의 虛榮兒를 作하게 하며 趨炎附熱의 徒에 出케하는 其主要原因은 果然何에 在한가 地方小作人으로 하여금 『吾人으로하여금 都市人 都市賃銀勞働者에 移케하라』는 地方小作人의 叫呼는 實로 小作人이 所謂勞働의 保障인 土地勞働의 束縛에서 脫하야 自由勞働에 移코저 하는 哀願이 아니랴 此를 經濟的 立場으로 觀하면 小作人이 賃銀勞働者로 다 一層 悲慘無比한 下級勞働階級에 屬하여 잇는것을 證明하는것이 아닌가 萬一 此를 疑하는 者이 有할진대 實地의 經驗을 有한 小作人과 賃銀勞働者에 向하야 何者의 勞働되기를 願하는가를 試問하여보라 兩者가 皆 小作人勞働者되기를 願치 아늘지니 近來 失業問題를 解決코저 政府가 熱心歸農을 奬勵함에 不拘하고 또 種々의 農業勞働者의 精神慰安方法을 設함에 不拘하고 一旦 農村에서 都會에 出한 勞働者가 容易히 歸農치 아니하는 것은 以上의 原因에 依한 바라 하겟다

最終으로 說及치아니치 못할것은 小作人의 其主要生產物이 되는 米作에 在하야 所謂勞働을 保障하는 日數는 一年을 通하야 幾個日이 되는가하면 普通農家가 有한 勞力의 最極度의 耕作能率은 僅히 五段步內外에 不過하고 延日數 百四五十日에 不過하다는 것이 事實이다 그러면 小作人은 所謂勞働保障 實은 勞働의 束縛에 依하야 勞力配給의 便宜를 失케되며 此로 因하야 全勞力이 束縛된 境遇 所謂農業勞働保障의 反面의 苦痛의 如何를 察知키 容易하다 以上 述한바에 依하야 小作人과 商工業勞働者와의 經濟的 地位及境遇는 大略說明된줄로 思한다 即 以上에 依하면 小作人은 如何한 點으로 觀하야서나 其境遇가 商工業勞働者의 境遇에 比하야 劣할지언정 小毫나 優한 点은 無하다 即 小作人은 企業者의 地位에 在하며 獨立生產者의 地位에 在하야 賃銀奴隷는 아니라 하나 그러나 小作人은 企業者의 地位 獨立生產者의 地位에 在함으로 賃銀奴隷地位에 在한 商工業勞働者보다 更一層 悲慘한 境遇에 處치아니치 不能하다 吾人은 實로 小作人의 企業的 地位를 一層 悲嘆하며 獨立生產的 地位를 一層 悲觀하는 者이라 하노라(終)

## 無產階級과勞働運動 (一)

崔昌益 (寄)

現代資本主義的 經濟組織下에 棲息하는 人間은 大體로 二階級에 논위여 말할수 잇다 資本家階級과 無產者階級 或은 勞働者階級 이다 前者는 生產資料를 私有하고 生產의 機會를 左右하며 또 勞働者의 勞働力을 搾取하야 剩餘의 價値를 利得하는 階級이오 그와 反하야 後者는 다만 自己의 勞働力만에 依支하야 生活하는 階級이다 다시말하면 이두 階級은 資本主義의 發生以後로 發達된 階級이다 資本主義時代의 必然的 產物인 同時에 基本的 階級이다 이밧게 中間階級 或은 中產階級이 잇스나 그는 自主的 階級이 아니다 박구어 말하면 中間階級은 上層資本家階級에게 附屬하야 下層 無產者階級에 接近한 自律的 存在를 持有하지 못하는 階級임으로 經濟生活을 하는 階級이다 다시 明確히 말하면 中間階級은 支配的 社會階級과 被支配的 社會階級의 中間에 介在한 過渡的 階級이다

無產階級은 生產의 資料를 私有하지 못하얏다 手工時代에 잇서々는 勞働者가 生產資料를 所有하고 生產하얏지마는 近世의 產業은 그를 一變하야 資本家階級에만 生產資料를 集中하얏다 따라서 勞働者는 生活을 만 그의 勞働力에 依하야 그 勞働價々하 維持한다 참으로 無產階級은 勞働時間의 比例로만 그의 生活을 持續하게 된다 그러나 勞働은 資本을 增大함이 可能한 時期에만 限한다 박구어 말하면 無產階級은 勞働만하지 안하면 到底히 生活을 維持할수업다 또 그 生活을 維持하기 爲하야 하는 勞働은 資本家의 利潤을 增大함이 可能한 時期에만 限하야 勞働者가 業을 求하게 된다 그와 反하야 萬一 生產의 機會가 不利하야서 資本家의 利潤을 增殖할이 不可能한 時期에는 勞働者는 業을 失하고 一層 憔悴한 價況에 빠지고 만다

資本主義的 生產方法이 基礎된 所謂 文明國의 內部에는 無產者가 最大의 階級을 形成하고 잇다 또한 그는 時間的 比例로 그 數가 增加한다 다시말하면 中間階級에 屬한 民衆은 漸次로 無產階級에 落入한다 例하면 小工業家 小農 小商人等은 無產階級으로 變化하는 必然性을 가지고 잇다 그 原因의 一般은 彼等 小資本이 大產業의 經營에 不能한 同時에 大資本家의 產業上 競爭에 低劣된 所以이다

## 너희들은무엇을어덧느냐 (80)

廉想涉

(상편) 三ㅣ五

덕순이가 말을맷고 안지니까 명수가 중환이를 쑥々쓰르며 답사를하라고 츙동이엿다 중환이는별안간 숫커워진듯이 음문이를해는수작으로

『멥소리를다ㅣ하는군 라군이나하구련』하고웃고만 안젓더니

『어듸한번해볼外!』하며우뚱중한얼골을번쩍커들며 니러섯다

『롤떡을먹으면 떡갑슬주고케사人반과를 바드면 하인전례를주고 남의렴을바다먹으면 조흥으로 노래가락한마듸를 한다든지하다못해 바이올링을 뜻는다거나 옵간을친다거나해서 먹은갑슬하여야 하겟지만 그저먹고마시고 떠들라고만 만드러노은 조선사람의뎐형덕(典型的)인이 압밧게업는나는 먹고 마싯스닛가인케는 조곰만 떠들어보겟습니다 ── 엇던초가에서 고사를지내고 사랑에 떡을내어왓는데 떡목관을 드려노코 방문을홀적닷는바람에 기름신지에 켜노앗든스러커가든불이 확 써저버렷습니다 요장에서는 어서떡이드러오라고 자위질을치는데 불은써젓스니 아모리 드려누어떡먹기라고비々부터일너려온말이 잇지만 곳한봉사의떡이 안인지라 눈을 감고서야 먹을수업는일 그러타고 누구든지 희생덕정신을발휘하야 가지고 석냥을찻고불을켜고하는동안에 필야에 떡은 목관만남은것이오 운수대길하여야 팟고물이나 어더걸려이라 한놈이 발로하기를자ㅣ내가 불를켜노흘러이니 너희들은 손바닥만치고안젓거라 그러면 내가 마음을노코 하나식 만장일치로가결이되여서 사래를뜰러가면 저오셔단집에 사래를 늘러가지고 쏠유양갑을 더듬어차켜서 사찬석커보니까 맛가 앗상을와고안커을하든놈이 붉기쏠을 그쳐서서 외인손으로는 제붉기를떡져듯이 철석철석치고안젓고, 오른손에는 팟고물이 뒤발리엇스니 남은것이라고는 목관뿐이드라는 이야기를 어머니 젓먹을째에 드럿는데 그러한자미잇는 구경을 오늘에야 비로소보앗슴니다 그러나 나는손바닥을치자는데에 찬성한사람은 아니엇슴니다 그럼으로 정작떡은 아니먹고 다만복송아한개만 먹엇슴니다 아마떡을먹은사람은 이자리에잇든업든 누구든지 또다시잇겟지요」하며 중환이는말々옷다가 별안간 정색을하며 말을니엇다

『그러나 여러분! 만일 여러분의귀도가일종의관성(慣性)으로 이러한경우에는 이러이러하는범이라는 구々한형식에 잘니어『그러한것이아니라 진정으로 경건(敬虔)한 마음에서 우리커나온신앙심으로 하누님에게나리신 은총을 사례한것이라하면 나의래도의 그릇된것을 여러분에, 사교덕으로사죄하기전에우주의만법을 통재하시리라고 생각하는 한우님 ── 만일 한우님을밋지안는다면 ── 여러분외그아리싯다운 심령에 대하야서라도 나는백배로 사죄하겟소이다 그러나 만일그러치안으면 나는나의한일을 조곰도 후회하지안을뿐더러 여러분은 다만불문일고안커서 떡을먹으라하얏거나 혹은잠간 제사를지내엿는데 나는 제시상밋헤서 기여나와서 과실한개를 집어서맛보앗다는데 지나지안는다고 생각하겟슴니다......」

여러사람들은 눈을 부르대이고 주먹질을하는중환이를 긴장한태도로 말뚱々々쳐어다 보고안젓다 ── 한규와 정애는 송구스럽다는낫빗으로 마리아는늑져 『저사람이 심성은하얏나?』하는 의심과 미운생각으로 아모영문모르는 희숙이는다만놀라서 입븐딱버리고 유화는 살긔를씌운눈으로 그리나덕순이와 영옥이는 사분의찬성과 육분의 흠괘를 는기는모양이요 명수와 홍진이는 다만담배를 피우며 우슴만이엇다 중환이는목소리를나커서 또

『......그러나 우리는 져에 얻시 오륵양신이허락하는대로 간단을 서로비초여서 사람답게이약이하며 즐겁게노신시다 사람은 사람의탈을벗고 사람의「레벨」을넘어가서 사람이상도 될수업고 사람이하도 될수업는것이외다 우리가 사람답게되고 사람답게놀며 이약이하는 가운데에서 진성(神性)을 다시발하면 한우님을 차줄수가 잇겟지요 ...또한 면옷흐로 한마듸하랴하는것은 아서 져안방 알에서 묵벽에걸린 이뎡광주분의 사진을보고 생각이 낫슴니다만은ㅣ 오늘날 두분이 서로만나신지칠년만에 셰로々々헤어지셰서 다시험문을 더닥그신다니 후일에 성공하야가지고 두분이다시 만나실쎄에는 커사진을 박히시든그쎄와가치만나서 그쎄보다도 더장하고 이쎄보다도더즐겁은잔채를 베푸시기를 비오며 그쎄에는 이가튼 반미친놈이라도가장서루든과대신으로라도 불러주시기를바랍니다』

[illegible] 地價는最高七圓六十九錢으로報 [illegible] ◆第二面 當中은前價과如하며 十五錢이라四十八錢에始하야 [illegible] ◆第五面 當中은 [illegible]

大正博覽會 拓殖博覽會 朝鮮物產共進會 褒賞牌受領

京城貫鐵洞一六九番地 朴德裕洋靴店 電話光化門一八三番 振替京城七九八五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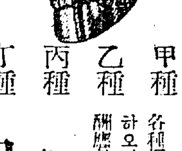
洋靴及經濟靴의原料를極擇하와精工製造하오니不拘多小하고倍前愛顧하심을伏望 地方은代金引換으로迅速酬應

◎寫眞術教授◎ 實地 通信 寫眞器械 無料貸與 [illegible] 朝鮮寫眞專門學院 元山府本町三丁目

履物界의經濟王이라할(고무)靴의需用이日益增加함은一般이周知하시난바이와 弊店은斯業을營業한지二週年間에幸히 海內僉位의多大하신愛護와誠實無僞한 原因으로日益繁昌하와 [illegible] 本商會를一層擴張하고 [illegible] 僉位는倍舊愛顧하심을切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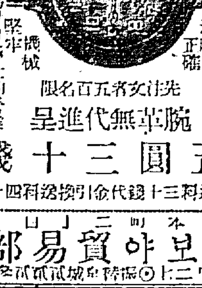
고무靴 都賣 散賣 京城府仁寺洞一六五番地 永運商會 主 康汀云 白

株式名義書換停止公告
本社定款第十七條에依하야本月三十日로부터第二回定期株主總會終了日까지株式名義書換을停止함
大正十二年九月二十五日
京城府花洞一三八番地 株式會社 東亞日報社



學生帽子各種 水木中折帽子新製品
特種 甲種 乙種 丙種 丁種
各種帽子를精術製造하와特別廉價販賣하오니不拘多小하시고請求하시면即時酬應함
但地方代金引換
京城府鍾路三丁目六十八番地 昌興商店

東亞日報讀者에限廉賣
獨逸製腕卷時計



라집入 十二形 示時正確 機械堅牢
本社는國內文化를爲하야正確한商品을販賣하며不正한商品은아니오니安心하시고注文하시요
先着文注五百名限 腕革無代進呈
特價 五圓三十錢 先金送料三十錢 代金引換送料四十錢
京城本町二丁目 우쓰보야貿易部

帽子는 스다
都賣 散賣 極力싸게 地方代金引換은 親切第一
京城南大門通 스ター商會

團成社 [illegible] ◆米國 [illegible] 死의渦卷 [illegible] 毒旋風 [illegible] 名優生活 [illegible] 時報 [illegible] 나이비지 [illegible] 사랑 [illegible] 朝鮮劇場 [illegible]

◇佛國革命이產出한正史實蹟의偵探小說◇
東亞日報連載 閔牛步 譯
# 무쇠탈
四六版四七三頁 美麗한新裝幀
定價一圓三十錢 送料六錢 (三冊以上下送料先金)

東亞日報의讀者치고야 누구가「무쇠탈」을모를이잇스리오! 此書는일즉이 滿天下讀者諸氏의熱烈한歡迎을博하얏슴니다 譯筆의流麗함은그야말로秋水를凝할지라 이지루常一般의飜譯書에比할바이리오 弊社에서이에此書를上梓함은오로지我讀者諸氏의渴仰에副코자함이라
一、破格의廉價 二、鮮明한印刷 三、堅靭한紙質 四、嶄新한裝幀 等은實地로比較하면알려니와 決코普通出版界의企及치못할바이라 이또한擁愛中의「무쇠탈」로하야금一層光彩를加케함이오 弊社의特色임을자랑하야두고자한다
發行所 京城府花洞一三八番地 東亞日報社出版部

活版印刷 印刷鮮明! 料金低廉!! 校正嚴密! 迅速酬應!!
東亞日報社印刷部 京城府花洞一三八番地

再生 活命液
定價表 大瓶 二圓二十錢 中瓶 一圓五十錢 小瓶 八十錢 試用 三十錢
본관다만 매활명익의특효 [illegible]
再生肺活液 淋疾特効藥 梅毒消滅球
本舖 再生堂藥房 主 車九錫 振替京城四七五八

梅毒新藥 ヨートカリ丸 六〇六號代用內服藥
[illegible]
販賣所 博愛堂 電話光化門八八 [illegible]

## 塞爾比의侵略計畫
### 勃牙利國境에軍隊集中

「살로니카」來電에依하면塞爾比는勃牙利國境으로軍隊를集中한後好機會를俟하야浸略코저計劃中인데塞爾比國內의狀態는甚히不安한形便에在하야攻擊을受하는模樣이라더라(倫敦廿四日發)

## 伊希紛擾報告書
### 法律學者에委托檢閱

國際聯盟會議에서는伊太利希臘間의紛擾에關한意見報告書를七名의法律學者에게委任하야每一語式此를檢閱할터이라는데法學者는爲先說明에對하야質問을選擇하리라더라(倫敦廿三日發)

## 特別憲兵隊組織
### 匈牙利의承認要求

『소피아』의革命紛擾는終滅되얏스나『불가리아』政府에서는時局에對抗할만한特別憲兵隊를組織코저此의承認을同盟各國에게要求하얏더라(倫敦二十三日發)

## 軍縮에互助的條約
### 國際聯盟의主要事業

本年度國際聯盟總會의最히主要한事業은各國의軍備縮少를實現케할만한相互援助的條約의起草에在한것은無疑한바이라此問題를擔當한委員會는今日外지에提案된十九個條中十三條를可決하얏는데右十三條에는左와如히規定되얏더라

一、國際聯盟加入國으로서本條約에調印치아니한國은國際聯盟書記官長을通하야條約에同意한다는旨를通告하면本條約에規定된利益을享受함을得함此境遇에는書記官長은他의調印國에右의旨를移牒할事

一、國際聯盟에加入치아니한國은本條約調印國三分二의同意를得하야本條約의加盟國이됨을得함

## 米國廢船競賣

米國政府에서는戰鬪艦及巡洋艦合計二十二隻을入札競賣에附한다는旨를公示한바右는華府軍縮條約의規定에從하야廢棄處分을行하는것인데其中六隻은十月二十五日에賣渡될터이라더라(紐育二十二日發)

## 露領各地에도地震

露領中央亞細亞及黑龍江方面에小地震이頻發한다는報道가有한바就中에도中亞細亞『폴로라크』地方의地震은六分間을繼續하야家屋에龜裂을生하얏더라(英斯科電)

## 日本의野心을指摘
### 露國共產黨機關紙의論調

駐英日本大使林權助子가牛津大學에서試한西伯利解放의演說은頗히勞農露國의神經을刺戟케된지라共產黨機關新聞『프로다』紙는樺太撤兵要求其他를例證하야日本의野心을指摘하얏더라(英斯科電)

## 智多政廳
### 移轉開始

智多革命委員會其他極東의軍事及政治上의中心을哈府에移轉할計畫으로九月十五日頃부터着手하얏는바必要한先發者는旣히哈府에到着하얏스며且購買組合中央同盟極東銀行極東通商部等은哈爾賓大連及海參威의取引을第一로하는關係上現狀대로智多에殘留하게될지며그리고移轉은全部鐵道에依할計畫이라더라(哈爾賓電)

## 露國人入國取締
### 査證이無한者는處罰

外交部는最近中國에在住하는露國人이多한바其中에는過激分子도混入하야治安에害가有하다하야二十三日各省에對하야露國人의入國居住許可證을必要로하야若此가無한露國人은國際法에照하야處罰할旨의通牒을發하얏더라(北京二十三日發)

## 露中交涉
### 開始時日決定

二十一日外交總長顧維鈞中國交涉使王正廷兩氏는『카라한』代表를訪하고非公式으로協議한結果豫備會議開始의時日을決定하얏는데張作霖氏는此會議에參與케하고자省議副長呂維東新務處長沈成章外交顧問郝鵬雲楊卓等數名을北京에急行케하고尙且顧維鈞氏는此會合에서露國承認의困難을諷刺하얏다더라(北京電)

## 中國讓步無意
### 宜陽丸事件交涉

宜陽丸事件을交涉키爲하야濟州로赴한山崎領事는城內總司令部에서山東國防第一師長兼總指揮官인陶湘氏와面會한後重慶領事로부터依賴된日淸汽船會社에對한要求金百萬圓이라는不當한要求는果然事實인가를質問하얏더니彼는此에對하야一厘一毛라도不足하면一日淸汽船에서百萬圓을提供할方途가無하다하면違法으로現金武器等을脅迫하야積載케한領路檢閱使吳佩孚氏에게辦償케하는것이可하니此를同氏에게請求하기를希望하며又山崎氏에게는甚히未安하지만은此問題에就하야는如何한兄弟朋友라도認定치아니할터이니百萬圓을提供할意가無함으로山崎氏는司令部를退出하얏더라(東京電)

## 復興院官制
### 內容

今明日中에發表할帝都復興院官制內容은左와如하다더라(東京電)

一、名稱은帝都復興院이라稱함

一、帝都復興院은內閣直屬으로함

一、帝都復興院에總裁副總裁를置함

一、總裁는復興審議會의幹事長(內務大臣)으로써此에充함

一、參與는關係各省의次官、勅任官、貴衆兩議員、學識、經驗이有한者及實業家로부터此를選任함

一、復興院은計劃執行機關으로各部를置한外에參與、評議員을置함

一、評議員은爲主히現在의都市計劃員으로써此에充함

## 復興院과各省官制

帝都復興院에서所管할個所는東京市及橫濱市의二市로하고其他는都市計劃局所管에屬케할것이며又東京市內務省과其他各省事務의一部는復興院事務內로移管케될것은勿論이나此로因하야政府의施設事務에直接變更될것은無할터이오從하야從來의各省官制에改廢를見케될理는絶對로無할터이라더라(東京電)

## 公布는廿六日

二十四日閣議에서決定한帝都復興院의官制는直時相當한階次를取하야樞密院에對하야諮詢한後來二十六日宮中東溜間에서緊急樞府會議를開하고可決한後裁可를得하야即日公布할터이라더라(東京電)

## 總裁는後藤內相
### 東京復興院

二十三日의閣議에서帝都復興院組織을決定한바總裁一名、副總裁一名、勅任部長四名、勅任事務官、奏任事務及技師、判任事務官、技手各々若干名을置하되特히參與制度를設하야民間으로부터經濟家中의人材를參與케하고復興計劃設計建築其他學者、技術者、實業家中의人材를參與케하고復興院을總務部、設計部、建設部、材料部의四部에分하야事業을分擔하게하며그리고別로諮問機關으로帝都復興評議員會를倂置하기로決定하고尙且帝都復興院總裁는後藤內相이兼任하기로決定하고副總裁는池田社會局長官으로內定하얏더라(東京電)

## 復興資金其他
### 震災救濟會決定

大震災善後會에서는繼續하야二十四日午後一時에開會한後商工業의復興資金件及都市計劃에關한案件을左와如히決定하얏더라(東京電)

一、商工業復興資金에關한件 支拂猶豫令은期限이到來하는同時에此를廢止하고必要에應하야預金支拂을可能케하며又特殊銀行과普通銀行及其他金融機關으로하야금有價證券의擔保가有한者以外라도確實할줄로認定하는者에게對하야는無擔保의貸付를行케한後政府及日本銀行은極力此를援助하야商工業復興資金을融通할事

一、都市計劃에關한件 都市計劃에對하야는必要不可缺할만한範圍에서速히大綱을定한後此를發表하야直時永久的建築에着手케할事

## 緊急勅令實施
### 大阪은自廿一日

食糧品、衣類、電氣機械、電信、電話機、自動車、建築用材等生活必需品의輸入獎勵等에關한緊急勅令은本省으로부터指令이遲延되얏스나大阪稅關에서는二十一日부터實施하얏스나十七日外지免稅를遡及하기로하얏다더라(大阪電)

## 義捐金品總計

二十四日外지의義捐金總額은三千七百二十一萬圓이요義捐品의豫想價格은千九百萬圓이라더라(東京電)

## 印刷局의罹災와
### 切手印紙類問題
#### 續々大阪으로注文

印刷局은震災當時火災로因하야階上에在하든印刷機械全部가階下로墜落破壞되고階下에收設하얏든印刷機械도破壞되야使用키不能케된故로印紙切手及貯金通帳爲替證書其他의印刷를大阪與版印刷株式會社로注文한바其種類와印刷物은一錢及一錢五厘의切手와各種의收入印紙로서其種類는數十種에達할模樣인데全部金額과色彩가相異하며又圖案도切手와印紙의二種에區分되야從來의切手나印紙보다非常히複雜하다는바此新切手及印紙는全部『오서든』刷로서切手는一度刷요印紙는二度刷이나從來와如히『미싱』도加工치아니하고從하야裡面貼付用에『아라비아』糊도塗布치아니하얏슴으로實際에此를使用할時에는剪刀로서裁切하고裏面에는糊를塗布치아니하면不可하리라더라(東京電)

## 『漫然上京은不可』
### 池田社會局長官談

東京府下에서만燒失倒壞된工場은一萬三千工場이요勞働者及俸給生活者의失業者가非常한數에上하얏슴으로政府에서는此等失業者의就職策을講究中인바罹災에關한事業에는此等罹災失業者를使用하면彼此便宜할터이며又國家財政에依한事業도該失業者를採用할것은勿論이거니와地方의事業도可及的失業者를派遣할希望으로地方長官에게通牒하는同時에鐵道의無賃輸送도承認을得하얏슴으로此際에人을地方에서求하기를避하는同時에東京으로來하면何等相當한業이有하리라는漫然한生覺으로上京하는것은不可하니地方人은注意하기를希望한다고池田社會局長官은語하더라(東京電)

## 供給令及其他
### 廿三日閣議經過

二十三日의閣議는午後一時부터首相官邸에서首相以下出席臨時物資供給令及復興機關組織內容等에關하야各種으로協議하얏더라(東京電)

## 供給令
### 實施方法
#### 爲主히米國品輸入

二十三日農相官邸에서臨時物資供給令의實施方法에就하야協議한結果第一着手로木材及鐵材를米國으로注文하기로決定한바其數量은木材約八九萬噸과鐵材及亞鉛板等約十二三萬噸의豫定인데政府에서는以上의物資를輸入한後에此를民間小賣業者에게賣下하야一般需要者에게供給케할터인바以上의物資를輸入함에就하야는數十萬噸의船舶이必要하나此는輸運界가不況한此際임으로船腹에는少毫도不足을感치아니할터인故로政府에서는右物資를至急히注文하야二十日間假量에日本으로到着케할豫定이라더라(東京電)

## 保險支拂催促
### 震災救護委員會決議

東京府會震災救護特別委員會는二十三日午前十時부터開會燒失한各學校의燒失된地에假建築의校舍를建築하고十月中旬부터下旬에亘하야各府立學校의授業을開始하기로申請하고次에保險金支拂問題에關하야左와如히決議를遂하얏더라(東京電)

決議

保險會社는營利事業임과同時에社會救濟의本質이有함으로過般大震災에對하야는全力을擧하야救濟에努力할것이라信하는바然而各會社는約款을利用하야支拂을拒否함과如함은全혀人道를無視하야社會救濟의眞理를解치못하는것이라政府는速히各會社에對하야保險金支拂을催促함을切望함

## 結局은兒玉伯?
### 關東長官後任

兒玉秀雄伯은山本首相의招致에依하야二十四日午後一時半首相官邸에赴하야首相과會談하얏는데右는兒玉伯에對하야關東長官就任을交涉한것인데同伯은快히承諾할터인즉近々親任式을擧行하리라더라(東京電)

## 米賣公定價格

農商務省食糧局에서는府市公設市場의拂下米價格을左와如히公定하얏더라(東京電)

一、日本白米一石四十一圓以下(小賣商보다一圓廉價)

日本玄米一石三十六圓以下(小賣商보다五十錢廉價)

一、外米一石十三圓五十錢

## 露西亞의近況
### 과新聞界

去月日本實業團과共히莫斯科에入하얏든當地取締役藤島進氏는同市에支局을設置하고歐洲에向코자하얏스나京濱地方의震災로本社가燒失한報를接하고西伯利를經하야二十四日午後九時京城을通過하얏는바同氏는語하야日「露國內의旅行은豫想外로自由이며且愉快한同國官民의新聞記者에對한待遇는懇切한態度로歡迎하며博覽會에는莫斯科를爲始하야各地記者가新聞館에會合하야各館을詳細히案內함으로便宜가多하얏노라

露國 은今에國內가統一되야現狀은建設에努力中인바新經濟政策의實行도博覽會의開催와共히國民的建設運動에入하얏다할을得할지라外交問題로露國의急務는東中鐵道問題와北樺太問題의解決인바此는日本과도重大한關係가有하다할지며露國政府는山本內閣에後藤子가入閣하얏슴으로日露關係의將來를樂觀하는狀態이라

戰爭 內亂饑饉後의露國民은神經過敏이되얏스리라思하얏스나實로平靜하며彼博覽會의大混雜中全露二十六의各種民族이莫斯科에來集하얏스나別로所節이無하야今日見하얏고柔順한國民임을證明할지며如斯함이라思하노라露國은宗教의自由와共히言論의自由도認하나政府及共產黨의機關紙以外에는中小數黨의共產黨이天下를維持함으로共產國임으로

政府 事業廣告以外에는個人會社의廣告가無함으로機關紙以外의新聞은存立키不能한바新聞通信은『로스타』社가中央執行委員會의機關으로國內通信과國際通信을獨占하야統一하얏고其幹部는五名共同執行委員會의幹部인바『카라한』氏도其一人이라新聞紙는中央執行委員會의機關인『이수베스차』最高經濟會議의『에코노미』(新經濟政策의實施者)의機關인『쎄스카야、치스』共產黨中央委員會의『프라우다』等인바此外各新聞社長은레닌氏의妹『마리아、사노아』氏이며此가露國의代表的三大新聞이라

此外 에莫斯科에는莫斯科共產黨의機關紙『라보자모스코』가有하고全露職業組合中央委員會發行의『베트라』가有하며又地方新聞은地方執行委員會의機關紙가有한바各新聞社共히經營難으로每月多大한欠損이有하나補助金으로維持하며彼等은政府와新聞과國民이一體가될것이라하야博覽會의新聞館에는『諸勞働者及農民은新聞記者가되라』하는標語를大書하얏고記者等自身도勞働者이라稱하고記者大會는勞働者大會이라名하얏다云々

## 有意한領事會議
### 近々京城에서開催

近々京城에滿蒙在勤各領事及關東廳滿鐵等의朝鮮人關係者를京城에會合케할計劃을遂行한다는바右는震災後의對策을附議할는지或은震災前의計劃을遂行하는지는아직不明하나何如間朝鮮人問題가主題가될것은明白한바此에依하야從來의對時的、個別的政策을統一코자하는것이며如何間此領事團會議에서對朝鮮人策의講究에就하야甚히有意義한것이라觀測되더라

## 金融界의危機와
### 出穀期의金融援助
#### 水口理財課長談

震災直後의金融界는日本內地甚히多少危懼를抱하는說에對하야朝鮮도亦然相當한打擊을受하리라는說에對하야……現在形便으로는各金融業者가幾分緊縮方針에出한程度에止하고其大한影響을受하고잇다고는하기어려우며然이나問題되는것은……現在情時로는此非常時를……

## 支店銀行

이日本內地에서資金을吸收하야……日本內地金融界를援助할것이나然이나그리하면朝鮮의資金이日本內地에流出되야……出穀期에될수잇는대로만히移出하야日本內地에서資金을吸收하고……今後는自己力으로開拓하야갈各自의覺悟가必要한바……出穀期의地方金融은相當한資金이……援助케할方針이나이에依하야幾分間이라도만히移出케하고자하는바이라

## 米豆移出
### 關西가大部分

朝鮮米豆의日本移出은逐年增加하야米는三百萬石大豆는百五十萬石의年額을示함에至하얏는바移出地는九分外지關西地方으로移出하야各方爲替主인바阪神地方에配給에當하야……名稱을變하야朝鮮米豆를日本米豆와如히去來하는額이大部分인바日本에서는朝鮮米豆가多할……

朝鮮米豆 는日本의豐凶을따라去來關係로移出額에異動이多한데此는朝鮮物產의大宗인米豆貿易에對하야頗히不利한바이며日本移出米豆가關西에偏하여……昨年中의朝鮮米豆移出地를見하면左와如하다

| 移出地 | 米 | 大豆 |
|---|---|---|
| 九州地方 | [illegible] | [illegible] |
| 四國地方 | [illegible] | [illegible] |
| 本州西部 | [illegible] | [illegible] |
| 本州中部 | [illegible] | [illegible] |
| 本州北部 | [illegible] | [illegible] |
| 北海道 | [illegible] | [illegible] |
| 臺灣 | [illegible] | [illegible] |
| 合計 | [illegible] | [illegible] |

右와如히昨年中의朝鮮移出米는……精米의移出이多함은朝鮮의精米工業이進步發達함을表示함이라더라

## 京城貿易額
### 釜山通過

釜山稅關內貿易調査會調査에依한京城稅關一部가撤廢된四月以後八月外지五個月間의釜山經由京城移出入貿易은左表와如한바當初에는多少不安하얏스나漸次增加의趨勢에有하야五個月累計는入超二百二十五萬五千八百二十二圓인대即此貿易은大部分이移入임을示하는바이라

| | 移出 | 移入 |
|---|---|---|
| 四月 | [illegible] | [illegible] |
| 五月 | [illegible] | [illegible] |
| 六月 | [illegible] | [illegible] |
| 七月 | [illegible] | [illegible] |
| 八月 | [illegible] | [illegible] |
| 合計 | [illegible] | [illegible] |
| 計減入超 | [illegible] | |

## 中旬京鐵收入
### 一般히減收

九月中旬京鐵局收入은總計六十七萬六千三百四十二圓인바前年보다三萬八千二百九十圓의大減收를見하얏는데此를種別로擧하면乘車人員三十七萬七千五百十九人貨物噸數九萬九千三十九噸客車收入三十三萬五千八百七十三圓貨車收入二十八萬八千五百三十八圓倉庫收入二千五百三十五圓雜收入四萬九千三百四十六圓一日一哩平均收入五千七百四十三圓이며更히此를各線別로列擧하면左와如하더라

| 線別 | 收入計 |
|---|---|
| 京釜線 | 三〇四,七四七圓 |
| 京義線 | 二四五,一一一 |
| 京元線 | 三八,四三八 |
| 湖南線 | 五〇,二八八 |
| 咸鏡線南部 | 一五,七一八 |
| 同 北部 | 二一,九九〇 |
| 計 | 六七六,三四二 |
| 前年度比較增△減 | △三八,二九〇 |

## 交換週報減退

京城手形交換所前週中手形交換高는枚數二萬一千六百七十五枚金額八百七十四萬七千三百六十四圓인바前週中交換高에比較하면枚數는四千三百三十六枚金額은四十九萬二千六十一圓의減退인데前週中證券種類別交換高는左와如하더라

| 證券種類 | 枚數 | 金額 |
|---|---|---|
| 小切手 | 一五,九八 | 五,一七三,三一二 |
| 爲替手形 | 三六 | 一七六,二一八 |
| 約束手形 | 一,〇八〇 | 六六六,〇六 |
| 政府預金小切手 | 六九 | 六六八,五三二 |
| 郵便爲替證券 | 二,九九 | 一七四,七六四 |
| 公債々券 | 一 | [illegible] |
| 同利札 | 三五 | 八,八一一 |
| 雜證票 | 一三九六 | 一七三,八八九 |
| 合計 | 二一,六七五 | 八,七四七,三六四 |

## 最近京城物價

京城商業會議所調査에依한關東地方震災突發後九月二十日現在京城市中物價는總品目五十八品中八月末에比하야騰貴한者는白米外二十九品低落된者는三等麥酒外十七品인데大概騰貴傾向을示하얏스며各品目의騰落狀況을見하면左와如하더라(十印騰貴△印不變)

| 品名 | 八月末 | 九月二十日 | 差額 |
|---|---|---|---|
| 玄米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同(地搗)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白米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同(普通)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大豆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小豆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大麥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小麥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淸酒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白鶴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麥酒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燒酒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醬油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食鹽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麥粉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赤玉酒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三矢사이다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素麵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白砂糖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石炭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撫順炭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平壤炭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煉炭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木炭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堅薪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石油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揮發油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玉洋木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唐木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細布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白木綿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黑羅紗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新聞紙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綿絲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共進은無期延會

共進會를開催하기로……震災의影響으로……無期延期하기로……

## 停止處分依然多數

京城手形交換所加入銀行의……

## 看守長試驗規程

朝鮮總督府及所屬官署……

## 生絲會社合同

……

## 自動車郵便遞送

遞信局에서는……

## 日米海電修理困難

……

## 辭令

朝鮮總督府參事官 松村松盛

……

## 橫說竪說

▲今回震災로因하야發生된消極的事實이一二件에止치아니하나▲그中에도……

## 振替貯金受拂狀況

……

## 商況

### 外國經濟電報

### 倫敦銀塊

### 紐育銀塊

### 紐育棉花

### 大阪三品

### 大阪株式

### 京株賣買高

### 短期取引

### 大阪株式延取引

### 株式市場
#### 京取又軟報
#### 大新亦軟化

二十五日京取市場에各地氣配는……

### 京株賣買價

### 綿絲布標準價

### 各地穀物市場

### 大阪期米

### 仁川期米市場
#### 月末硬直勢平

仁川米豆取引所仲買人 ㊇ 仲買店 店主 堆浩 電話 八〇番

## 地主歷訪

三、有名無實한本年二月六日順天郡地主會의九個條決議를排斥할事

……문하고 일반소작인으로부터 입의밧앗던 각종세금을 돌녀달나고요구한결과 그들은모다 승락……(住岩面趙秉浩)씨도요구에대하야……할이내(四割以內)로밧겟다승낙하얏스며 또동군주암면 조곡리……에응하야 실행하겟다 하얏다는바 이로써보면 디주들도차々각성하는듯하다

碑命德 朴明叔 梁鳳伊

ClibPDF - www.fastio.com

# 拾得한砲彈의爆發로 兒童七名慘酷히死傷

## 四名은即死하고三名은不治의重傷

## 始興郡北面黑石里에서

폭탄한개가 쏫가운데 쟝난하든 아해들이 탄환을 중앙에놋코 쇄드려본다고 ... 재작이십사일 상오팔시경에룡산데칠십구련대보병과관출대는사격연습을하기위하야한강건너시흥군 북면흑석리(始興郡北面黑石里)압산부근에서 권혹이십발을사격하얏는데그중에 두발은터지지를아니하얏슴으로 즉시병사들은불발탄(不發彈)을 백방으로차저서산가기슭에놋코 곳에는「위험하니접근하지말나」는패를부처놋고 우선 도라가게되엿다 이때에 마츰산너머에서 일곱아해들은 병사들의 ...

낫으로 탄환부리를 건드리자 공이 한번 맹렬한 포성과가치 폭발되매 일곱아해중의 쇄아해는 즉석에서 죽고 남은네아해는 중상을밧아 즉시룡산 텰도병원으로 다려갓스나 그중의한아해는 역시절명되고마랏스며남은 세아해도 눈 다리 팔 등에 회복할수업는무참한상처를밧아 목숨은건저도 평생에 낫지못할병신을면치못하게되고마랏다

▲死亡者▼

始興郡北面黑石里一六一 鄭億三男般錫(一)

同五六 柳明雲長男明福(二)

同一六九崔德三三男以男(二)

同一六九申順根二男完伯(八)

▲重傷者▼

同一九三李姓女長男申永俊(一)

同一三三李敬順五男末先(一)

同一五六李必和孫世榮(七)

# 慘憺한爆發現場

## 즉사한시톄와풀밧헤흘은피 곡성과눈물중에싸인흑석리

[illegible]

# 婚禮옷이襚衣로變한慘劇

뜻밧게 죽은동리에서 일곱아해를 사상케된 흑석리에는집々이 수운이의원고 아들을 일흔집에서는 곡성이끈치지안아 부모의 애통하는 정상은 참아볼수업스며 폭탄터지든현장에는 아즉도 즉사한시톄가 그대로노히고 일면에는 붉은피가 풀닙에엉기어서 당시의참상을 미루워알수잇섯스며 그중에도 가엽슨일은즉사한신완백은이십륙일이혼인날이엇는데 장가가라고 지어두엇든옷이 수의가 되얏다하며 류명복은오십로인의 애지중지하든 독자이엇스며 신영준은 ...

# 慰勞金治療費

## 군대에서지출

[illegible] 위로하얏고 비록아이들의 잘못으로된일이나 사상자가나게된것은 미안하다하야 각권(角田) 련대장은 즉사사망자의 가족에게는 각々현금 백원식의위로금을주고 증상자에게는 치료비를 부담하기로하얏다더라

# 軍隊에責任업다

## 상당한경계를하엿스나 모르고그리한것이라고

이번사실에대하야룡산군사령부강대좌(岡大佐)는말하되군대는 상당히 주의하라는 게시를하엿슴에불구하고 아해들이 모르고 한일이닛가 군대에서는 책임을질필요는업스나 이가튼 사실은 왕을향하겟더라

◇포탄의폭발현징‖거적을덥흔것은시톄

# 陸軍側의大失態

## 職務上責任은免不得

### 위험한줄을알고도그자리를비여논것은물론큰과실

참상을 보게된 당일데칠십구련대에서는 오권여텀시 부리권 ...

# 遭難同胞次第歸還

## 횡빈에서배를타고직접부산으로온다

◇本社東京特派員李相協特電◇

조선사람의 귀국을허락하게되얏슴으로 증복환(增福丸) 광제환(廣濟丸)으로 횡빈에수용중인 로동자약삼백명을이십칠일에, 광제환, 앵도환(櫻島丸)으로 로동경의학생과 로동자각백명식을 이십구일에, 습지야(習志野)에 수용중인 로동자 약삼백명을싯고 부산으로향하겟더라

# 財産管理問題로 竹洞宮李王職間에波瀾

## 부동산문서와도장까지압수

## 한리왕직처치에반대를하여

## 自由行動의宣言狀提出

일시문데만튼죽동궁(竹洞宮)새주인민영식(閔庭植)씨는민리왕직장관에게 재산관리거절장(財産管理拒絶狀)을 지난십오일에 보내엇다 본시죽동궁의 주인이되는민영의(閔泳翊)씨가상해에서 작고를하며 루거만위큰재산을 상속할분명한 혈속이업서서 별々풍파가 거듭이러나다가 결말에이르러서 겨오 상해에서중국부인의몸에나흔 민영식씨를 상속자로 결뎡이 되얏든것이다 그러나 민영식씨의 위인이 미흡한뎜이 만타하는 소문이들니며 결하야 루거만의 큰재물을능히

...

첫재 가령 고문으로 민영휘(閔泳徽) 송병준(宋秉畯)감사(監事)로는 고영근(高永根)을둘일

둘재 재산에 관한 권리서류를 일데 리왕직에서 보관할일

셋재 금전 출납에는 반다시 리왕직 회계과당의 동

### 약삼십분

동안은 군데가 업섯승으로 그룹에 이가틋사고가생긴것이다 이에대하야 군데에서는 특별구역안에서 생긴일은 [illegible]

# 京義線에서 列車轢人

## 털도에서졸다가

지난이십사일오후네시사십분경에경의선북행 데이렬차가 맹증리(孟中里)령미(嶺美)간을지날때에 삼십세가량되는 조선남자가텰둑우에 안저졸고 잇는것을보고 긔적을불면서 급피뎡거하엿스나탄력(彈力)으로긔차가굴너가는통에 필경은 무참히살려죽엇다더라

# 永登浦에서 列車轢人

## 두발과팔이잘러저

부천군부내면마분리(富川郡富內面馬墳里)리원하(李元夏)(二)는재작이십사일오전구시경에영등포(永登浦)뎡거장에서인천으로가는 텰도선부근에서 귀차에치여 그만두발과왼팔이 잘너지고 ...

# 長官不在로 아직보류중

# 爲先權利行使

## 봉인한도장을 쓰내쓰기시작

# 龍川地方農作物은 霜災로아조全滅

## 수재못헤약간남은것까지 된서리에다결단나바렷다

평안북도룡천(平北龍川)디방에 야튼농작물(農作物)은권연히먹는지난십구일부터이십일까지폭풍우가잇슨후에이십일일밤에는 사나운서리가 나려서 먼저썬수해로 대부분은거둘것이 업게되 울것이 업게되얏스며 서리는 례년에비하면 대략 일개월이일느다더라(룡천)

# 暴風雨로漁船遭難

## 배여덜척이부서지고 사람이십구인도사망

## 江原道高城地方에서

강원도 고성군고성면봉수리(江原道高城郡高城面峯燧里) 부근에서는본월이십일밤폭풍우로인하야어부의참사와선척의련복이 다수하얏는대조사한결과참사된 어부가 이십구인이오 련복파괴된선척이팔쳑이라더라(고성)

# 總督府第二回安否調査四面에

# 仁川의毒殺騷動

## 일본녀자가조선사람을독약으로죽엿다고소동

## 事件의眞相은尙未詳

재작이십사일오후구시경에인천부사뎡(仁川府寺町)부근에서독약을먹여서사람을죽엿다는소동이 이러낫다사실은원래충남강경(忠南江景)사람으로 ...

# 東京地方暴風雨

## 假建築生活의大困難

## 그나마도모다문어저바렷다

이십사일오후여섯시경에동경디방에는강렬한 폭풍우가 습래하얏슴니다 ... (동경뎐보)

# 自他殺은

## 아직알수업고 독약은양재물

# 自警團員放火

## 구경삼어서 그리고조선사람에게핑계

동경부하 풍다마군 화뎐촌 ...

# 普天教幹部檢擧

## 原因은內訌의中傷인듯

## 자세한것은경찰당국도비밀

지난이십삼일밤에 ...

# 覺皇寺에서 追悼法會

## 서선수해에죽은고혼들을위하야

# 百六十名歸還

## 이서사일에

# 水災同情金

# 東京京城間 電信直通

## 일회선만회복

# 北海道에豪雨

## 농작물손해불소

# 犯人을亂打致死

## 전신이피빗되야미구에사망

## 鐵山警官의不法行動

# 東海道線列車 通行困難

# 青年三名檢擧

## 모중대범인인듯하다고

# 共進會前에 旅館飲食店을取締

## 일일히림검조사한다고

# 危險한敦岩里

# 暗葬屍體는

## 기실은제웅이다

# 手提金庫

## 를훔친자는잡혀

# 烈女에게金指環

## 민영휘씨가보내여

# 大杉氏殺害動機

## 불온행동을할가하여서살해

◇육군성의발표한것◇

# 朝鮮體育會의 第三回全鮮庭球

## 시월중순에거행한다

## 今番에는小學團도參加

# 新郞新婦

◇휴지통

# 泣血鳥(읍혈조)

【113】 李熙喆作 盧壽鉉畵

「그럼 무엇때문에 그러닌?」

향란은 선희의얼골 표정하나로써 무슨큰문제가 걸녀잇는줄로 짐작하엿는지 밧삭대여드려가면서 한쪽선희는 가비얍게 향란의말을 밧아가지고 변면한태도로

「얘 내가 무어라구 그러니 — 사람이 늘 우서만가지고잇서야되겟구나」

「그럼 늘 우서만가지고 잇서야지」

향란은 다시 「그럼 무슨별일이 업는게로구나」하는태도로 여러케말하엿다

그러나 실상선희에게는 무슨일이업는것이 아니다

선희는 세상에나서 어려서음으로 — 라하면 자긔의맘으로써도 꿈에그려보고는 추측치못한 이상하고 더러운줏을 여러 남자에게 당하엿다 그것도밤이면 오히려엇덧는지모르나 백주에...... 실로 그때에 선희는 술취한여러남자가 욕보고잇는자긔의팔다리의근육이 안허커리하고욕내여돔을비틀고 그무서운장면(場面)을버서나려고도하엿다 또는 긔진맥진하야 울든시 얼골을 하여가지고 살녀달나고 빌어보기도 하엿다 그러나 이모든선희의 분투와호소가 야성이 만々한 술취한남자들에게 조금이라도 감각이되얏슬리가 업다 실컷말엇 그들은 선희의몸에야비한중욕가하고 나종에 선희의 몸을 노략죽에에는 무엇이 엇지니 — 비평들을하고잇다

선희는 그때에 엇더케하면조흘지를 몰랏다 울냐도울고십지만코 그리고악을내여 아자식들을한번 놀내게할가하고도 생각하엿다 그러나도리켜 이것도다나의 엿그러가는 운명의 작란이라고 생각할때에 선희는도로혀여러남자의압헤 부쓰러운 태도를보이며 푸러진옷고름들을 원망업시매엿다

그런데 그여러 남자들가운데 김모란자가 잇섯다 이날선희를기생대신으로 엿도사에 실고나온것도 이자인데 이자는강원도 엇던부호의아들로 서울와서 벌서삼사년동안이나 방탕한생활을 하는것이다 생긴거도 남자답게 관골귀하악골이 발달된 얼굴에는 살도동々하게씨고 그려고얼꿀빗은 술ㅅ독으로 검붉게보엿다 하여간 귀운차게보이는남자로 선희는 오늘낫까지인상조케 그를 교제하여오던터인데 이날 그에게 엉너가서 그런죽글을당하고나니 — 선희는 밤에 집으로도라와 곰々히 생각하여볼때에 긔어히 분푸리를 이자에게하리라 하엿다......

—「그럼 늘우서만가지고잇서야지」하고 향란이 가벼얍게한뒤에 선희는 다시시름업는태도로 눈을들어 향란을바라보고잇다

「얘! 참정말무슨곡절이잇는게구나」

향란은 다시선희의손을 잡아흔드럿다 그리고 다시말을니어

「그런데 대관절어듸를 갈려고 이러케 아츰부터단장을하고 잇니」

하고 선희의이단장하고 어듸를가라는거긔에 무슨 큰의미가잇는줄을생각하고 암중겨 이러케 무럿다 그러나 선희는아모대답도업시 눈만정면으로물너 향란을 바라보며 웃고잇슴을 니것다가 갑자기 생각해낸듯

「아 — 커! 너의서방님은아직자니」

하고 다시 선희에게 말하엿스나 실상은 거긔역시 무슨의미가잇나하고 알아보라고 하는향란의

「흥서방님이 다무엇가그런소리는 말두말어라」

선희는 향란의말에 반사뎍으로 곳이러케 대답하엿다

「말두말어 — 엇재서 너도이케는 배가부른게로구나」

「......」

선희는 향란의말에 관심치안코 커텐밖을 머리로 가르칠뜨시몸을가지며이러케말하엿다

「왜? 늦니고」

향란은 똑잡아예는켕으로 다시무럿다

「너야 지내사정을 잘모르는나지 그런다 참나는오늘낫까지 서방인지 무엇인지 한것때문에엇더케속을썩엿는지 — 애굴쉬보렴어쩌게도 커것이남한테 속여가지고 날그더러운자식들한테 무수한욕을 보이게 하엿구나 그러구 또도라단이며 그런다나 누구던지 날사갈사람이 잇스면 사가라고......」하고 선희는 길게무슨말을 펴노키시작하엿다 그러고 그언어와태도는 지극히 녀학교를 졸업하고 문명도의성경학원을지단인녀자이라고는꿈에도생각지못하게되엿다

## 震災同情만은 偏僻되다고

麗水學生의西鮮水災同情

全南麗水公立普通學校에서는今般東京地方震災에對하야道와郡의方針이라하야學生들에게義捐金을募集한바學生側에서는過般西鮮水災에對하야는何等의同情이無하고今般東京地方震災에限하야만同情한다함은偏僻되는事가아닌가하는말이頗多하얏는데先生側에서는西鮮水害同情은學生自意에任한다하고그態度가甚히冷靜함으로學生側에서는서로勸誘하야다시西鮮地方水災救濟同情金十四圓二十六錢을學生互相間에募集하야本社로依賴하야救濟에充케하얏더라(麗水)

## 西鮮水災救濟分配

平北龍川郡外上面南部의一般有志靑年들과高麗美風會의主催及本社南市分局後援으로過般來西鮮水災救濟劇을巡廻興行한다함은旣報와如하거니와此에對하야各處有志의多數한同情을엇었는대金額의總數는二百七十七圓인바그中一百七十七圓은同地方救濟費에充케하고百圓은平壤鎭南浦等被害同胞를救濟케하기로하얏더라(南市)

## 永化女校昇格 仁川敎育界盛事

仁川私立永化女學校는去十三日附로일즉이運動中이든女子普通學校로昇格되얏는대此가但仁川敎育界의榮光일뿐아니라朝鮮敎育界더욱女子界의盛事이라하겟다 同校는距今二十有餘年前아즉도仁川地方에女子敎育機關이업슬때朝鮮開國五百六年四月에米國人宣敎師趙元時힐만婦人及徐箕範三氏의힘으로初等敎育을施할私塾으로設立하니此가同校의前身일뿐아니라朝鮮女子初等敎育界의地方으로서는最初이라當時校舍를內里禮拜堂에置하엿다가同五百十三年二月에生徒의增加함을따라創立者諸氏의出資로外里에幾十坪校舍를新築移轉하얏고隆熙二年韓國私立學校令에依하야永化女學校의認可가잇섯고明治四十四年九月에現所在地에數萬圓을投하야二百六十六坪의煉瓦三層校舍를宏大히建築하고校舍를移轉하얏스며翌年에다시此로도不足하야新花水里禮拜堂을비러分校室을增設하야校況이日盛하얏다그리하야同校의經路는遂히今日의運命을親하게되얏는대現下在籍生은本校普通科八學級先生九名學生三百六名幼稚園一學級先生二名園生五十名分敎室二學級五十名이라더라(仁川)

## 德川林野査定 十九日부터閱覽

平安南道德川郡內의林野及林野內에介在한土地의調査는旣히終了되엿슴으로九月十九日부터三十日間德川郡廳內에서一般의閱覽에供한다는바同郡內에林野又는林野內에土地를所有한者는同期日內에閱覽함이조켓다더라(德川)

## 平壤公普入札中止

平壤鍾路公立普通學校는今春學校評議會의決議로十萬圓의豫算으로新築하기로하고七月부터工事를開始하야本來敎室이든平壤의古物인館을四千圓에賣却하야곳毀家하지하얏든바此基地에新校舍를建築하기爲하야去十四日에請負業者를募하여入札케하려하얏든바今般東京地方의震災로因하야各銀行에서는金錢貸出을하지아니함으로不得已入札을中止하얏더라(平壤)

## 新興學院後援會

群山府新興洞은本是貧民村으로敎育機關이無하야學齡에達한兒童은就學의道가無하더니同里金敬聲李永春車孟良諸氏가此를慨嘆하야村民一同과協議한結果新興學院을設立하기로하고過般校舍十餘坪을建築中이더니旣히竣功되야爲先夜學을開始하얏는대同學院의維持策은新興學院後援會를組織하고後援會에서此를維持하기로하얏는데後援會의任員은如左하며目下維持會員을募集中이라더라

會長金汝章 副會長李永春 總務金敬聲 幹事朴正晧池聖夏朴魯式金鏞李鍾大 評議員王一鳳外十一名(群山)

## 黃正憲氏의厚意

龍川郡府中面中端洞黃正憲氏는過般海溢로因하야家屋을失하고路頭에彷徨하는者를自家에多數收容하야救濟에努力하얏다는바一般은氏의厚意를賞揚한다더라(龍川)

## 三郡庭球會中止

旣報한楊州漣川抱川聯合庭球大會는今般東京震災로因하야一般이謹愼中이라는理由로同大會도當分間中止케되얏더라(楊州)

## 普信講習會盛況

居昌基督敎靑年會幹部의主催로今般同會館內에普信講習會를設하얏는데學生數는旣히四十餘名에達하얏고敎授는左記諸氏가無報酬로熱心擔當하는中인바校況日盛하다더라

沈文泰、愼亮燮(居昌)

## 消息잇는順天學生

東京在留全南順天郡學生中九月十六日外지의今般震災避難을하엿다는消息을接한者는左와如하다더라

金性信 鄭鎭 金鍾弼 趙一松(順天)

## 德洞敎會水害同情

龍岡郡大代面德洞예수敎會에서는中和地方의水害慘狀을同情하야衣服百二十件과現金十五圓을募集하야中和屬域예수敎會牧師金永鎬氏에게引渡하얏는대金永鎬氏는去十六日에水害가甚한唐井面倭岩里罹災民에게分配하얏더라(中和)

## 价川桑園品評準備

平南价川郡에서는蠶業獎勵의目的으로第三回桑園品評會를開催하기爲하야目下各面에서申込을

## 价川林相品評施賞

平南价川山林組合主催로林相品評會를開催한다함은旣報한바어니와出品數는三百十二點에達하얏는대其間審査員尹時益氏는各面에出張하야第一審査를終了하고道技手中川佐藤氏의第二審査를畢한結果左記와如히去二十日午前十時에价川郡廳에서施賞式을擧行하얏더라

一等 朴希柱 吳大鉉 二等 朴士範 白庚湜、玄淳厚、安利涉、康祐健 以外四等外지十八人이當選

◇模範林業者及篤志褒賞 徐肯烈 吳大俊、玄宇楠、玄念鎬、李元奎、金寶洙、朴禹坤、金鶴北、朴鍾祐、李晟鎭、李錫根、李德成、李觀祀、玄允根(价川)

## 仁川少年會創立

仁川「불보기」少年會創立總會는去二十一日午後四時內里禮拜堂에開催되얏는데中牧師의趣旨說明과朴東石君의經過報告와規則通過가잇슨後左와如히任員을選定하고金約翰君의獨唱이畢한後來賓中祝辭와會員의答辭가잇슨後少年等의우슴가운데閉會하얏더라

會長朴約翰 總務盧根 會計李泰鎔 檢査成震記 金潤順 學習部長金觀喜 傳道部長金約翰 運動部長崔康得 音樂部長玄順學

## 仁川共宿所夜學

仁川栗木里에잇는府立共同宿泊所에서는同所에宿泊하는勞働者中無識한者를一般勞働者의敎育을爲하야去十七日부터同所內에勞働夜學을開始하얏는데目下에勞働者中에만入學者가임의十餘名에達한다하며今月末日外지널니募集한다는데崔敏圭氏가擔任敎授한다더라(仁川)

●曹光學生의正直 安州曹光學院學生崔敬哉君은去十九日學校에通學하는道中安州郡東面孟中里에서金屬眼鏡一個를拾得하야此를安州警察署에屆出하얏더라(安州)

●仁川町里總代招待 仁川府에서는今般震災義捐金募集等의勞를謝하기爲하야去二十二日午後七時市內東洋軒으로各町里總代約三十餘名을招待張宴하얏더라(仁川)

●成川庭球團의歸還 平南成川郡靑年修養會庭球團은過般德郡公會堂新築落成式紀念庭球大會에參加하얏다가最後優勝의光榮을帶하고一行十三人은無事히歸鄕하얏는데同大會參加當時에當地一般人士와靑年倶樂部의多大한歡迎及親切厚意는一行의感謝不已하는바이라더라(成川)

## 社告

今般業務를一層擴張키爲하야左記二處에販賣所를設置하고市內配達을迅速히하오니愛讀諸位는如此照諒하시옵소서

南部販賣所 釜山府草梁洞九八九 電話六二五番

北部販賣所 釜山府佐川洞四三二 電話六七八番

東亞日報釜山支局 白


# 南鮮脚戲大會

日時 陰八月十七十八兩日間

場所 金海私立合成學校運動場

主催 金海靑年會

後援 東亞日報金海支局


# 總督府第二回安否調査到着

당국에서 지난십륙일싸지에 조사한동경디방재류동포 데이회안부조사는 이제새로도착되엿더라

現在長白寮寄宿生生存者(九月十六日)

朱戴德 京城鍾路三丁目八五
韓鳳圭 同 武橋町一九
李海宗 同 社稷洞三〇七
金尙黙 同 西大門一、二、一五〇
楊櫶植 同 安國洞五三
趙容億 京畿楊平西面菊秀里
李觀熙 京城府崇三洞一一二
鄭寬容 同 益善洞一二八三
李弘求 淸州北一面酉中里
崔進甲 同
劉震潤 忠州忠州面龍山里
金相瀅 槐山沼壽面壽里
金晄應 同
金內熙 同 靑川面桃源里
林福大 同 沼壽面壽里
趙昌熙 同 槐山面靈月里
李季出 同 會坪面會坪里
崔在成 鎭川梨月面長楊里
朱世卿 槐山郡會坪里
洪福成 同
洪德吉 同
孫秀乭 慶北大邱德山町二〇
張濟鎬 同 高靈郡梅村里
李榮玉 同 漆谷倭館面鳳溪里
李仁淑 同
李日祥 同
尹鳴均 忠南燕岐西面鳳岩里
李南夏 同 天安東面東山里
李榮昌 同 洪城洪川面五官里
金天中 同 論山連山面官洞里
閔寬奎 同 大田炭洞面柯亭里
張正月 慶南釜山牧之洞二一九
申磷植 群山府萬町四二
鄭東烈 同 鎭安聖壽面外方里
鄭晋容 同 錦山礪山面斗餘里
李錫彩 同 金堤孔德面馬峴里
趙紀韶 同 金堤面西苍里
李九重 同 孔德面馬峴里
工炳鎬 同
李錫稷 同
李智瑊 同 孔德面松山里
鄭判中 同 全州高山面邑內里
姜卿 同 金堤孔德面馬峴里
高秉禧 全南咸平咸平面箕閣里
李貫玉 同 濟州濟州面三信里
權慶燮 平南安州安州面龍西里
趙基鍊 同 新安州面元一里
金基號 同
朴吉龍 平北鐵山百梁面三鋪洞
鄭秉潤 同 鐵山面東川洞
盧仁用 同 站面鷲峯洞
許九五 同 西川面仁松洞
李觀具 同 熙川熙川面邑下里
元錫市 咸南元山府上洞四〇
李鑛武 同 定平春遊面光興里
元鍾善 同 月城里
金相鎬 同
金智鎬 同 復興里
金澤燁 同
金光輝 同 定平春柳面道興里
孫龍得 京畿開城北本町八二三

東京市內各所散在者

金肇現 北間島龍井村
尹鶴均 忠南燕岐郡西面鳳岩里
趙仁稷 平南龍岡三和面龍山里
金仁燮 黃海黃州龜洛面朴山里
李東夏 同 德岫里
宋大懿 慶北金泉郡千浦松非洞
韓成敏 平南平原郡安面上里
朴均洪 京城西大門外松月洞
金壽淵 全南長城郡黃龍面
許昌稷 同 羅州郡新面士界里
金泰河 平北定州郡峴面漁湖里
金景河 同
裵憲植 咸南永興郡順寧面
崔淳和 間島龍井村
崔洛所 咸南永興郡
張化均 全南務安郡際面
李馥奎 江原道伊川西面友味里
姜大懿 同
張鉉熙 同 德山面龍鶴里
朴在仁 京畿利川郡洪溪面於石里

李光一 務安郡海際面德山里
金顯洙 忠北淸州郡本町
崔思容 京畿高陽漢芝面豆毛里
鄭雲鶴 同 下往十里
林昌昊 間島龍井村
尹甲炳 忠南論山江景黃金町
子秉淵 平北鐵山郡站面鷲峯洞
孫泰 忠北槐山郡沼壽面
丙熙 同 靑川面桃源里
許九五 平北熙川邑內
昌熙 忠北槐山槐山面雲月里
鄭東烈 全北鎭安聖壽面外弓里
李根植 黃海信川月面馬鳴里
趙南駿 忠南舒川鍾川面都萬里
李鍾哲 慶北迎日浦項面浦項
鄭寬容 全北益山三箕面西豆里
相榮 忠北槐山郡沼壽面壽里
金有信 慶北軍威義興面連柱洞
田斗植 慶南宜寧柳谷面世千里
白龍洙 忠南保寧珠山面東五里

坂本署管內現住者

尹봉긔 忠淸燕岐郡西面鳳岩里
崔명봉 平壤新陽里九九
鄭名不詳 京城光熙町二ノ五三

上野署管內現住者

宋政根 忠北陰城陰城面邑內里
李元守 慶北迎日松羅面上松里
鄭鏞煥 京城光熙町二ノ一四

寺島署管內現住者

愼宗甲(二〇) 慶南居昌郡北上面
崔武用(二三) 同 蔚山蔚山面東里
愼鎔晟(二三) 同 居昌渭川面茅東里
鄭甲辰(二〇) 同 咸陽休川面湖山里
金珍道(二五) 同 居昌南上面大山里
金榮浩(二三) 同 昌寧金水面德局里
柳吉秀(二三) 全北金堤白山下井里
謙錫集(三三) 慶南咸陽大和面佐里
姜仁永(三三) 學生 慶北慶州大正町
林且九(二六) 慶南居昌北上面葛溪里
金禁洙(二八) 密陽千葉山面陰光里
李春花(二七) 昌原上南面鳳林洞
申容煥(二五) 全南海南郡物內面
愼鋪晳(二六) 慶南居昌北上表山里
愼昌範(三二) 同 居昌渭川面蔚川里

向島署管內現住者

朴雄伊(二六) 晋山郡桃開面靑山洞
金東湜(二〇) 泗川郡柾洞面苔海里
曹瓚柱(二二) 金海郡在仁面大靑里
宋在奎(二〇) 金堤郡月村面長箕里
辛炳珍(二六) 平山郡積岩面綿谷里
辛相彬(二六) 同
姜海權(一七) 同
李相俊(二四) 同
崔竹川(二〇) 京畿道揚平郡高山里
趙七星(二五) 平山郡文氏面白水里
伊光夏(二六) 居昌道岩面龍月里
朴鍾甲(四一) 海南花山面月湖里
朴吉浩(二三) 同
朴重國(二三) 同
尹在玉(二九) 同
尹石今(二九) 同 石湖里
崔承範(二九) 宜寧郡柳谷面烏木里
崔局元(二五) 同
李命喜(二五) 東萊郡西面草道里
金一鳳(二〇) 義城郡安溪面上舞里
高文鳳(二〇) 濟州島東中面兎山洞
李谷玖(二六) 京城黃金町二丁目
廉東淳 群山府松島洞一八
南鏞祐(二四) 振成郡松炭面七院里
田元敬(二〇) 宜川郡臨山面吉星洞
金大仁(三七) 楊州郡楊州面桃花里
朴鮮獻(二三) 茂朱郡茂朱面邑內里

富坂署管內現住者

孫石鳳(學生) 慶州慶州面皇南里
孫石俊 同
柳淳德 同 不明
金國信 同
張鎭星(二〇) 若珍郡邑內里
洪淳軾(二〇) 加平郡西面上泉里
金在煥 開城郡松都面滿月町
張用俊 開城郡西面靑龍洞
崔長國 慶城郡柔浦面香堂里
崔應國 同
元尹伊(入夫) 昌原郡熊東面頭洞
李元用 同
李玉見 同

許又成 同 同
李鍾百 同 三陟郡北三面松丁里
金國仁 同 同
李暌燮 同 海南郡溪州面新溪里
李股浩 同 京城苑洞二三九
閔內瀅 同 城州郡月浦面茨田里
朱甚守 同 昌原郡熊東面頭洞里
文鳳聞 同
曺永槿 同 固城郡九國面滿運里
朴喜內 同 釜山郡府平面金山里
朱五祚 同 昌原郡熊本面
朴喜丁 同 釜山郡海平面小島洞
曹順國 同 金海郡鎭洛面大山里
朴喜暌(二七) 釜山郡山東面沿中洞
崔圭鎭(二六) 固城郡九萬面蓮山里
崔尙烈(二〇) 同
柳德齊(二六) 同
金應天(二〇) 同 釜山郡海平面
崔性先(三九) 同
崔正燮(一九) 固城郡九萬面廣浦里
金鍾潤(三一) 釜山郡海平面小島洞
曹順伊(二七) 同 九萬面孝蓮里
李福賢 同
朴仁夏(二七) 釜山郡海平面山陽洞
李鳳賢(二五) 固城郡九萬面廣德里
李守東(二五) 陜川郡陜川面西山里
朴鳳煥(二五) 昌原郡天加面東山里
李斗永 定本郡春柳面傳岩里
金萬里(二七) 同 昌原郡西面合城里
崔東奭(二三) 固城郡九萬面酒坪里
李佑玉(二三) 陜川郡瑞州面月坪里
李佑淮(二三) 同
徐萬祚(二三) 同 昌原郡鎭東面
朴熙玉(二二) 固城郡馬岩面花洞勿里
金飛水(二五) 同 九萬面淨林里
金璟鎭(二三) 晋陽郡宜山面南泉里
黃吾錫(三三) 固城郡馬岩面?勿里
曺仁燦(二四) 永川郡智谷面開溪里

青梅署管內現住者

李春滿 慶南尉山郡斗東面
李炳安 靈巖昆二修面鮮山里
金順德 永興郡洪仁面南山里
張順子 同 三思里
鄭仁國 同 順興面柳南里
趙甕子 同 徒興面四泉里
盧鳳九 尉山郡三同面屯北里
盧榮九 同 熊村面古運里
盧榮大 同 三同面屯北里
金斗星 順天郡海龍面海倉里
許甲湯 京城黃金町一、四七六
朴相錫 尉山郡熊村面檢丹里
李學榮 同 三洞面屯北里
朴毅稷 梁山郡下北面三甘里
崔錫甲 尉山郡三洞面屯北里
金永坤 梁山郡東面法基里
崔鳳和 慶州郡西面龍明里
李君七 梁山郡熊上面柳谷里
朴興守 同 下北面三甘里
金長守 尉山郡下北面德峴里
金敬律 彥陽面盤里
崔斗根 彥陽面 基關里
崔斗萬 同
朴琉萬 同
池正鳳 龍仁郡內四面植金里
金斗玉(二七) 金海郡下堺面東山里
金順模 義城郡開文面龜瑕里

東京市內各所散在者

金和淑 全南濟州島大靜面
李弼鉉 宜川郡山面長公洞
崔元範 中和海鴨面龍山里
金信湖 黃海道榮二浦旭町
平北宜川郡川南洞

相愛會內收容者

李起東(二〇) 京城苑洞二四六
朴奉琴(三三) 密陽郡密陽面內二洞
鄭鎭鎬(二九) 全州全州面高砂町
許 坊(二〇) 迎日郡松羅面祖師里
朴泳鎭(二三) 蔚山下廂面西洞
裵東洙(二六) 永川郡永川面菓川洞
嚴完燮(二七) 京城黃金町五、八六
金永驥(二六) 大同郡林原郡幗山里
孫瑞秀(二四) 大邱府東千代町
柳能守(三三) 金海郡金海面北內里
金小述(二〇) 尙州郡尙州面城東里
金興道(二四) 醴泉龍門面上金谷洞
金在鈇(二九) 義城郡舍谷面梅谷里
金在守(二二) 同
申在元(二六) 同
朴甫洙(二三) 靈岩郡靈岩面靈神里
文申春(二四) 迎日郡淸河面儉城里
金在文(二七) 濟州島舊右面淸水里

李大玉(三三) 同 □□面禮皆里
高任夏(三三) 同
朴秉萬(二四) 同 濟州面三徒里
金三萬(三三) 咸安郡北面中岩里
尹元伸(三一) 梅源郡淮田面臥牛里
張士七(二六) 漆谷郡仁洞面仇坪里
裵文潽(二六) 慶山郡南門面新芽里
金商永(二七) 同 固洞面三里
李桂松(二五) 濟州島濟右面格旨里
陳永根(一九) 東萊金溪面東山洞
金信主(一八) 義城郡公山面龍山洞
金甲權(二四) 濟州島舊右面格旨里
金東俊(二五) 康津郡道岩面永興里
金應瑄(三三) 同
吳達浩(二六) 和順郡陵州面南山里
金世根(二七) 靈巖郡德郡面倉乃里
黃世周(三三) 尙州郡米來面湖嶺里
金俶言(一九) 迎日郡淸河面淸津里
曺喜화(一四) 密陽郡一同面上中里
橫鳳翼(一八) 同 下東面三浪津
任右川(二六) 大田郡外南面大川里
高敬玉(一八) 濟州島大靜面永潤里
宋聖仁(二三) 同 大靜中面沙溪里
崔鴻九(二三) 居昌郡加東面一敬里
李泰介(二九) 宜寧郡富林面禾北里
鄭東成(一九) 蔚山郡洞仁面柳內洞
鄭景模(二六) 始興郡永登浦永登里
金俊伊(二四) 宜寧郡洛西面馬武里
朴信元(一八) 陜川郡內洞面大城里
李受石(二三) 經營郡山陽面當洞里
鄭相瑀(二四) 金泉郡金泉面黃金町
崔道鉉(二七) 蔚山郡三日面南陽里
金在行(二三) 濟州島舊右面頓毛里
片甲祚(一八) 金海郡下界面牛洞里
夫元赫(二三) 濟州島舊右面頓毛里
宋昭道(一九) 同 大靜面仁城里
申日平(一八) 同 面下毛里
崔禹洪(二三) 梁山郡上西面鴻島里
金萬國(二三) 江西郡昆倉面泉四里
金在勳(一四) 濟州島舊右面頓毛里
金成傑(一八) 江原郡淮溪面邑內里
夫昌玉(二三) 濟州島舊右面頓毛里
林在烈(一四) 靈光郡金井面龍興里
具本逢(二三) 慶南昌原郡東面
崔永逸(二九) 京畿高陽郡纛島面
秦孟龍(一八) 濟州島新右面組邑里
安敬鎬(一九) 金海郡下界面荷溪里
徐守頤(二五) 高靈郡雙洞面桂元洞
李泰熙(二七) 星州郡月恒面大山洞
姜任華(二三) 濟州島大靜面仁城里
張泰煥(一七) 陜川郡冶爐面上部里
金九七(二四) 濟州島大靜面安城洞
呂永喜(二八) 星州金水面鳳頭洞
呂定奎(二六) 同
李鶴相(二五) 濟州島舊右面格旨里
黃勳洙(二五) 平山新岩面背龍里
金谷九(三三) 密陽山外面茶竹里
李基昨(二三) 星州月恒面大山洞
申興龍(一八) 仁川桂峴里
朴來連(二〇)(學) 東萊金溪面大東里
申興吉(一六) 同 仁川桂峴里
申石乘(四八)(勞) 通城王龍面東里
李仲烈(三一) 南原山內面大井里
金三經(二五) 槐山、道安面光德
崔基瑞(二六) 扶安、東鎭、常北
金純川(二三) 濟州、江五、中平
朴鎭守(一九) 梁山、上北、小石
成點守(二五) 統營新町
柳自天(二六) 高陽、纛島、新川
金秉淵(一九) 星州、志士、修倫
金秉旻(二五) 同
金紉鎬(一九) 同
張榮根(一七) 漆谷、仁白、王溪
朴永夏(二四) 京城太平通
朴奉仁(二三) 泗川邑內面船津里
朱成甲(四一) 金海、菉洛、竹洞
千炳燮(二五) 莞島、靑山、芙島
曺雨鎭(二五) 陜川、赤中、竹上
李奉燮(一九) 北靑、上東、中里
朴仁吉(四一) 濟州、大靜、新平
文三釗(一七) 高陽、纛島、新川
金鍾信(二三) 濟州、新左、咸德
宋鶴洙(二四) 馬山本町一五四
金日永(二三) 京城昌成洞二八
高聖仁(二三) 濟州、大靜、新平
金明守(二三) 同
李明守(一九) 河東、河㶅、德興
林鍾亮(二三) 井邑、所松、泗川
金明俊(二三) 梁山、上谷、石溪
金施石(二四) 蔚山東面朱非里
黃昌洛(二三) 麗水、島南、細洞
趙洙鳳(一九) 光州、松亭、松亭

白泰仁(二九) 元山府石隅洞四三
李永逆(二三) 固城、永興、泰成
宋景勳(一四) 濟州、大靜、安城
李炳吉(二三) 永川、新寧、淸亭
楊祥九(二三) 宜寧、芝正、內島
[illegible]
尹鵬同(二三)
朴福大(二四)
裵甲世(二〇)
李中周(二〇)
金北岩(二三)
元璣植(二三)
東鳳只(二三)
朴且述(二六)
姜時中(二六)
金卞仲(二六)
朴東根(二四)
鄭德根(二〇)
姜庚山(二四)
趙道燮(二三)
金榮仲(二三)
南鳳先(二〇)
朴明玉(二〇)
余根復(二六)
沈今乭(二三)
朴在坤(二四)
金八衡(二〇)
金守萬(二〇)
黃小數(二〇)
金國河(二三)
金容實(二六)
成省淡(二三)
許熙(二三)
權大成(二六)
文東成(一四)
石昭根(二三)
石元相(二三)
李東光(一四)
徐石周(二七)
許其翔(一九)
金秉祿(二〇)
金極斗(二八)
安炳元(二四)
曹聖玉(二三)
李子善(二七)
崔勞川(一九)
吳聖德(二三)
趙應宗(二三)
曹聖杰(二四)
蔡周銅(二三)
李龍珠(一九)
崔永潤(一九)
鄭炳雨(一八)
李基邦(二八)
裵萬俊(一八)
金成文(二四)
黃東文(二三)
金且東(二三) 江東三登面李城洞
裵姓女(一五) 江東三登面竹淵里
文成業(二一)
黃連(一九) 迎日淸河面德城里
金貞福(二七) 開城元町六九〇
高東和(二三) 濟州舊右面格旨里
宋姓女(二三) 同 大敎面安城里

# 商況

休日前阪地武調는前場에七圓高하얏스며止際에는一部硬軍의得勢로始하니 [illegible]

▲第一節 當은停止에中은不成 高한三圓四十錢에始한바大阪三 [illegible]

▲第四節 當中은亦是如前하고

▲第六節 當中은亦然하고先限

▲第七節 當中은不成에先은四十錢에止하얏더라

| | |
|---|---|
| 初付 | 二十三圓十八錢 |
| 三節 | 二十三圓四十六錢 |
| 四節 | 二十三圓五十二錢 |
| 五節 | 二十三圓四十七錢 |
| 六節 | 二十三圓三十八錢 |
| 七節 | 二十三圓四十錢 |
| 止價 | 二十三圓十七錢 |
| 高價 | 二十三圓三十五錢 |
| 低價 | 二十三圓十錢 |

●더우비교● (華氏)

| | |
|---|---|
| 今年昨日(最高) | 七七二 |
| 昨年同日(正午) | 六六六 |
| 平均溫度 | 九七三 |

眼病者에 반갑은 消息

速히 곳처 시오!!!

도라호ー므、삼눈、血目、上熱眼、流行眼、눈고비、희미한눈、疲困한눈、닷친눈、푸러진눈等에는 効能第一의

大學目藥

各地藥房에잇소 價二十錢以上

十歲以下의小兒에는小兒用大學目藥이잇소

大阪市北濱 參天堂藥舖社